

부인된 성적 자기결정과 기이한 평화

—김인숙,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을 중심으로

이한나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 1 “고문의 땅”으로부터의 ‘먼 길’
- 2 금지된 두 함성—1990년대 초, 한국의 법정에서
- 3 남겨진 “부끄러움”—은재의 마음에 주목하여
- 4 ‘민주국가’로의 진입과 ‘동의’라는 환상
- 5 나가며: ‘여성문학’과 ‘대중성’에 관한 의문

본고는 법문화(legal culture)에서 여성이 겪는 상해(injuries)는 자주 인식되지 않거나 그 피해가 배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김인숙의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을 법적 조치의 범위 바깥에 놓인 여성의 고통을 서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법학의 관점에 기대어 다시 읽고자 한다. 학출 송은재와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약속하는 인물 정만우의 만남을 그리며 ‘노동자의 고통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소설’로서 위치 지어져 온 이 작품을 본고에서는 송은재의 마음에 주목하여 재독한다.

성폭력이 육체적인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성적 자기결정(sexual self-determination)’은 당대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자리매김이 녹록치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성’보다는 ‘인간’, ‘민족’이라는 광의의 개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공유되고 있던 이때, 자신을 강간한 정만우를 “훌륭한 진짜 노동자”로 성장시키려는 마음과 그를 향한 “적의”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은재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주목된다. 이 ‘눈에 띄지 않는 부끄러움(low-visibility shame)’은 요컨대 사회적 순응을 의심하는 강한 ‘적대’로 남아 시민의 위계(subordination of women)를 독자에게 노출하고 있다. 노동자의 함성과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함성이 모두 ‘소란’ 정도로 축소되어 잘 들리지 않던 시기, 법정이라는 장치 위에 노동자의 외침은 가득히 울려 퍼지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기이한 “평화” 속에 잦아들게 되고 마는 것으로 재현(representation)하는 이 소설은,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한다고 했을 때, 민주주의 체제에 돌입했다고 여겨지는 1990년대 초 한국에서 그렇다면 누가 ‘민주시민’으로서 호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일찍이 던지고 있었다.

국문핵심어: 김인숙,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 1990년대, 법문화, 여성주의 법학, 성적 자기결정, 눈에 띄지 않는 부끄러움, 적대, 법정, 함성, 재현, 민주시민, 동의

1 “고문의 땅”으로부터의 ‘먼 길’

1995년 9월 김인숙은 장편『먼 길』¹을 발표한다. 불과 몇 달 전 발표한 또 다른 소설에서 87년 6월 투쟁 이후, “싸우지 않아도 대체로 무난히 살아갈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의 미래를 두고 싶”²은 이들, 그러니까 떠난 이들의 행적을 좇던 그녀는 『먼 길』에서 마찬가지로 호주로 향한 인물 군상을 살핀다.

『먼 길』은 반정부 조직과 관련되어 한국을 떠나 어부로, 그리고 교민잡지사의 기자로 살아가고 있는 두 형제와 명우라는, 한때 운동권이었다가 법적 ‘난민’으로서 이곳에 불박이게 된 인물 간의 얽힘을 그려낸다. 동생 한영의 말마따나 타지에서 “기묘한 상태의 이방인”³이 되어버린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화”, “마치 모든 것을 거세해버린 뒤의 순결 같은 평화”⁴ 위에 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소설은 이들이 자신이 떠나온 나라는 “결코 제 정상이 아”⁵닌, “오직 고문의 땅”⁵이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즉 한국을 대타항으로 밀어내며 분투하고 있는 장면들 또한 언뜻 노출함으로써 묘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는 『먼 길』이 “이국정취와 안정감 있는 문체”로 “예상과는 달리 진행된 시대와의 화해를 모색”⁶하고 있다는 당대의 평가에 이 소설이 온전히 들어맞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먼 길』이 기 발표한 동명의 중편⁷을 고쳐 쓴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작가 김인숙이 개작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었는지에 눈길이 가게 만들기도 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인숙이 개작을 거치며 줄거리에는 별다른 변화를 선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연’이라는 인물만이 새롭게 등

1 김인숙, 『먼 길』, 문학동네, 1995.

2 김인숙, 『시드니 그 푸른 바다에 서다』, 푸른숲, 1995, 60쪽.

3 김인숙, 『먼 길』, 앞의 책, 45쪽.

4 위의 책, 88쪽.

5 위의 책, 69쪽.

6 「『먼 길』로 제28회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한 김인숙 인터뷰」, 『한국일보』, 1995.6.28. 인용한 부분은 한국일보 문학상 심사위원들(김윤식·김병익·이문열·최원식)의 심사평 중 일부이다. 기사에 따르면 “과거와의 화해”를 다룬 이 소설은 김인숙의 첫 수상작이기도 하다.

7 김인숙, 『먼 길』, 『실천문학』 제37호, 1995 봄.

장하여 한영에게 편지를 보내온다. 그렇다면 이 인물이 『먼 길』에서 발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외국으로 떠나자는 한영의 제안을 거부하고 홀로 한국에 남아있는 이 인물은 “잊는 것”이 아닌 “상처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무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소설 내에서 모호하게 남아있는 이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이 소설은 『먼 길』의 전사(前史)로서 유효하게 읽힌다.

두 형제는 언론에서 바다 건너 한국의 발전된 상을 비출 때면, 자신이 떠난 한국은 시궁창과도 같아야 한다는 인식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송신’을 이들이 애써 부정하고 있다는, 달리 말해서는 긍정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먼 곳에서 떠올리는 한국의 ‘보편’, 즉 ‘민주주의 사회(로의 진입)’은 언술했듯 새로이 나타난 서연이라는 인물에 의해 ‘상처’라는 비유를 거쳐서야 비로소 문제시된다. 이와 같이 『먼 길』에서 드러나는,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로 어떠한 흠결도 없이 진입해나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소설에 앞서 기록된다. 바로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⁹은, ‘먼 길’을 향한 희미한 발자국을 역으로 좇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작품이다.

2 금지된 두 합성 — 1990년대 초, 한국의 법정에서

줄거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 소설이 출간된 1990년대 초 한국 법정의 정경을 들여다보는 일은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¹⁰에 “상호 간의 고통이 마침내 이 시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를 감동적으로 묘화해낸”¹¹ 작품이라는 찬사를 건네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게 이 소설에 접근해볼 수

8 김인숙, 『먼 길』, 앞의 책, 144쪽.

9 김인숙,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 동광출판사, 1991.

10 위의 책.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은 I권과 II권으로 나뉘어 1991년 7월 10일에 동시 출간되었다. 이하 소설 본문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괄호 속에 ‘『긴 밤』I·II’로 해당 권차와 쪽수만 표기.

11 김철, 「진정한 대중문학을 위하여—김인숙의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 『실천문학』 제 22호, 1991 가을, 398쪽.

있게 한다.

『긴 밤』과 관련하여, 1990년대 초 한국 법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중 두드러지는 일은 ‘법정 소란’에 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90년대에 진입하자마자 법무장관 허형구는 ‘산업평화침해사범’, ‘좌익폭력세력’, ‘민생침해사범’이라는 3대 범질서 문란 사범에 대해 체제 수호 차원에서 중점 대처키로 했음을 발표한다. “학원·노동계에 침투한 주체사상과 및 계급혁명론과 무분별한 좌익통일론의 확산을 엄단하고 폭력혁명론에 동조하는 학생·노동자의 불순 책동과 그 배후 세력을 척결하겠다”¹²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이와 같은 지침에는 “사법부가 실질적인 자체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종래의 권위주의적이고 정권 예측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질서와 권위만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¹³는 등의 거센 비판이 뒤따랐으나 정책을 철회하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못한다.

결국 1990년 1월 24일 ‘법정 소란’에 모욕죄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25일부터 법정 소란으로 구속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창원공단의 전 금성산전 노조 대의원 박원주의 경우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모욕죄를 적용하여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풍성정밀 해고노동자 김남홍은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연유로 감치 처분을 내려 마산교도소에 수감한다.¹⁴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긴 밤』이 출간되었던 91년 7월 무렵까지도 이렇듯 ‘법정소란죄’ 명목으로 법정 안 노동자의 외침은 즉각 제지되기에 이른다.¹⁵ “온갖 화살을 다 맞았다. 이젠 우리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¹⁶는 목소리들이 존재했지만 판세를 바꾸기는 어려웠다.

이렇듯 노동자의 ‘법정 소란’, 즉 법정 내 그들의 단결, 연대의 몸짓을 막아서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1991년에 발표된 장편 『긴 밤』에 법정이라는 장치

12 「법정 소란에 ‘모욕죄’ 적용」, 『경향신문』, 1990.1.24.

13 「‘법정 소란’의 큰 원인은 사법부에」, 『한겨레』, 1990.1.19.

14 「‘법정 소란’ 첫 구속」, 『한겨레』, 1990.1.25.

15 「정역 12년 사노맹 간부 법정 소란죄 1년 추가」, 『동아일보』, 1991.6.26.

16 「편파 집행이 ‘법정 소란’ 불러」, 『한겨레』, 1991.7.13.

가 설치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궁구해볼 수 있게 만
든다. 『긴 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소설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당시 “대학가 특유의 베스트셀러”¹⁷로 자리매김하였던 이 소설은 학출 송은
재와,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약속하는 인물 정만우의 만남과 그 이후를 서
사의 큰 줄기로 삼고 있다. 소설은 은재가 대학 생활을 유예하고 스읍이라는 인천
의 한 소읍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비추며 시작한다. 이곳에서 한편으로 학생 운동
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약혼자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는, 청년 간담
회를 운영하며 마을 청년들에게 모임에 올 것을 권유하곤 한다. 그 중 정만우라는
인물이 모임 참석을 당부하는 은재의 ‘웃음’에 반해 사랑에 빠진다.

소설은 이후 급격히도 “의식화”(I: 28)된, 은재의 마음을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마냥 들떠하는 만우의 모습을 조명한다. 그는 청년 간담회에 찾아가 느닷없
이 “혁명, 혁명뿐이다”(I: 42)라고 외친다. 그렇게 은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
한다. 소싯적엔 권투선수로 활동하였으며, 지금은 마을에서 “거칠고, 하는 일 없
이 주먹이나 휘두르고 다니는 망나니”(I: 48)로 여겨지는 그는 노동자로 거듭나
기 위해 보란 듯 공장에 취직까지 한다.

어디선가 은재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만우는 술에 취해 그녀
의 자취방에 찾아가 제 사랑을 고백한다. 언뜻 한 남자의 순애보를 다룬 이야기로
『긴 밤』이 읽힐 무렵, 소설은 곧 은재의 “두려움과 경악”(I: 77)으로 가득 찬다.

왜 이러느냐구? 널 사랑한다, 은재. 그렇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꼬리
를 친 건 바로 너라구. 네가 먼저 나를 불렀지. 애초부터 쳐다볼 마음도
없었던 나에게, 소리쳐 부르는 목소리를 낸 건 바로 너였다. 네가 만일,
올라가지 못할 나무에 앉아있는 예쁘고 고귀한 새에 불과하다면,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 편안한 가지에서 내려오길 말았어야 했어. 네가 먼
저 내려와서, 그래, 손짓해 부른 사람도 없는데 네가 먼저 내려와서 짓이
겨진 잡초를 다시 한번 밟았다. 나는 밟혔고, 밟은 건 바로 너다. 예쁘게

17 「사회과학책 불황 대학가 전문서적 ‘찬바람」, 『한겨레』, 1992.9.30.

웃지만 말고 내 말에 대답을 하라구. 난 널 사랑해!(I: 77)

만우는 끝내 그를 거부하는 은재를 강간한다. 충격으로 은재는 그를 외면하지만, 만우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 쇠약해진 육체와 정신을 간신히 붙들며 살아가던 은재는 또다시 저를 찾아온 만우에게 “진짜 노동자”(I: 263)가 되라는 말을 건넨다.

이후 『긴 밤』은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노동(운동)에 몸을 던지게 된 만우는 파업 도중 구사대와 맞붙게 되고,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소식을 전해 듣고 법정을 찾아가게 된 은재는 그곳에서 정만우가 “이 사회의 폭력적 구조”(II: 232)에 맞선,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반인간적인 현실”(II: 232)에 대항하는 인물, “그 어느 것도 아닌 노동자”(II: 232)로 명명되고 있는 장면을 목도한다. 이어 만우는 “노동 해방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II: 232)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이는 이내 법정 내 수많은 노동자들의 외침이 모인, 찌렁찌렁한 함성이 된다. 공판 이후 만우를 찾아간 은재는 그가 “진짜 노동자”(II: 246)임을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 『긴 밤』은 상술했듯 노동자의 고통을 사랑으로 위로하는 소설¹⁸, 또는 “계산이나 이해타산이 스며들 여지가 없는, 그러나 맹목적이지 않고 분명히 올바른 전망 앞에서 있는 것이어서 더욱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¹⁹ 등으로 위치 지어져 왔다.

만우의 목소리에 와락 힘이 들어갔다. 번뜩이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안 죽을 거요. 놈들이 칼을 들이 대고 내 머리통을 박살 내려고 든다고 해도 나는 안 죽을 거요. 진짜배기 노동자는 이기기 전엔 죽지 않소. 이제부터 또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겨우 피라미 하나를 건드렸을 뿐이지만 그러나 다음엔 아주 물같이

18 김철, 앞의 글.

19 오태호, 「상실의 사랑에서 기억의 회복으로—김인숙론」, 『작가세계』 제24권 2호, 2012 여름, 61쪽.

를 해버릴 겁니다. 세상에 온통 드러운 모든 것들을 싹쓸이 뒤집어엮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짜 노동자가 될 겁니다. 이 품 나는 천국에서 진짜 사람으로…… 진짜 노동자로……. 두고 보라구요! 진짜 노동자가 될 테니까! 두고 보라구! 진짜배기 노동자가 진짜배기 앞날을 만들어 보 일 테니까.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노동해방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

“두고 보라구 개자식들아아!”

아수라장 같은 소란 속에서도 만우의 욕설과 구호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두고 봐. 두고 보라구!”

경호대에게 붙잡힌 채로도 완강하게 법정문을 붙잡고는 만우는 또 소리쳤다.

“노동해방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구호는 이내 복창되었고 그 함성은 법정 아니 법원 전체 아니 세상 전체를 뒤흔들 것만 같았다.(II: 237-238)

은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장 노동자가 되어 일도 하는 등 마는 등 불성실했던 정만우가 노동 현장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사실, 생산량 증진을 이유로 안전장치가 가차 없이 제거된 기계를 붙들고 일해야 하는 현실 등에 분노를 느끼다가 “진짜배기 노동자”로서 “노동해방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되는 위와 같은 장면은 기존 해석처럼 『긴 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듯 보인다.

“개, 개새끼드을…….”

만우는 겨우겨우 병실 바닥을 짚어가며 몸을 일으켰다. 벽에 기댔 듯이 해가면서 병실 문으로 다가가면서 만우는 좀 더 또렷해진 소란 소리를 들었다.

소란? 만우의 하얗게 바랬던 얼굴에 문득 핏기가 돌아온다. 소란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잡혀왔던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아주 낮익은 함성……. 만우가 병실 문에 채 닿기도 전이었다.

“만우야!”

다시 병실 문이 와락 열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우의 충혈된 시선이 병실 문으로 향하는 순간 수많은 얼굴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너희들!”

“만우 형!”

“아이 개자식들아!”

스물여덟 인생 전부를 합친 것의 그리움보다도 더욱 복받칠 얼굴들, 그들은 바로 온몸을 부대껴 함께 싸우던 동료, 동지들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개새끼들! 완전히 몰아내버렸어!”

흥분에 들뜬 얼굴들로 달려들며 그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Ⅱ: 182-183)

『긴 밤』에서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이들의 외침은 “소란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거대한 무언가”, 이윽고 “아주 낮익은 함성”이 되자 한다. 이 함성은 정만우가 노조의 규찰대장을 맡아 동료들의 신임을 얻어나가며 조금씩 모아 마침내 다함께 터트린 외침이 어떠한 소거도 없이 그대로 법정으로 이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연스레 “동료”, “동지들”의 “수많은 얼굴들”을 상기시키며 복받치는 감정까지를 선사한다. 앞서 되짚어본 바와 같이, 그러니까 1990년대 초 당대 법정에서 엄격히 명칭한 바대로 “소란”으로 그쳐 제지되기를 거부한다. 1991년 5월 투쟁이 소멸한 직후인 텍스트 바깥²⁰과는 다른 세계를 구현한다.

20 1991년 5월의 투쟁은 1980년대 급진적 민중운동의 마지막 필사적인 저항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 투쟁이 갑자기 소멸한 이유는 연속적인 분신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조작된 허구를 믿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처절한 투쟁이 종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김정환, 『비혁명의 시대—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2020.

이와 같이 논의해 보았을 때, 『긴 밤』은 노동자의 합성을 ‘소란’으로 축소하고 끝내 그들을 침묵시키려 한 당대 정치사회의 지침을 정만우라는 인물을 법정 에 세움으로써 자체로 받아치려는 시도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독자가 『긴 밤』을 읽으며 다다를 수 있는 것의 전부인가.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인 송은재의 행적에 주목해 보았을 경우, 90년대 초 한국 법정에 적어도 두 가지의 합성이 금지의 맥락 위에 놓여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남겨진 “부끄러움”—은재의 마음에 주목하여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외부로 확산되었을 때 여자는 세 번의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은 성폭행 현장에서, 또 한번은 재판정에서, 세 번째는 가정에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런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직시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여성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홍보 포스터 문구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맡은, 성폭력 피해자 여성 사라가 지방검사 캐서린과 협력하여 죄를 회피하려는 가해자들을 법정 에 세우고는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영화 「피고인」은 1989년 7월에 개봉해 흥행을 기록한다. 그 후 “우리나라도 성폭행 문제가 이제 나의 일만은 아니게 되었다”²¹는, 성폭력의 실상과 사회 제도적인 원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무렵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가 상영된다. 한 여성이 성폭행 위기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과잉방어로 기소되었던 사건²²을 바탕으로 제작된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홍보 포스

21 「〈피고인〉 강간당한 여성의 법정 투쟁」, 『매일경제』, 1989.7.10.

22 ‘안동 주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제도권 언론 보도에서 ‘엽기사건’ 수준의 재밌거리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데 난관을 겪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의 혀”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데 그친다. 「이

터 문구가 강조하듯 “진정한 ‘여성영화’의 서장(序章)”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일찍부터 드러낸다. 이 영화는 그러나 다음과 같이 논의된다.

영화의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가 성폭행에 관한 문제의식을 부각하는 데 실패했다고 의견을 모은다. “이 영화에서는 성폭행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로서 겪는 고통만을 그렸을 뿐 그녀 자신의 정신적 고통과 인간성 파괴는 그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거나, “성폭행이란 것이 그 사람의 사생활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간과하고 피해 여성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을 막아야한다는 점만 부각했다”²³고 역설한다. 다시 말해 영화가 피해자 여성의 내면을 비추기보다 그녀가 아내이자 어머니, 며느리로서 처한 사회적 곤경만을 비추는 데 급급하여 ‘본인의 자율적 의사’가 주요한 이슈인 성폭행 문제의 논점을 흐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토론회에 참석한 주부, 평론가, 교수들에 의해 가해진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누구의 아내 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폭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이중적인 성윤리”²⁴에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가 소급해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 등이 뒤따른다.²⁵

즉 당대의 관객들은 “정희의 삶으로부터의 내적 필연성과 이에 기반한 투쟁의 힘은 잘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²⁶라는 발언이 드러내듯, “성폭행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²⁷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서조차 “성폭행이 여성에게 주는 고

천만 여성이 분노하고 있다», 『여성신문』, 1988.10.29; 「성폭력범 혀 자른 피해자, ‘부도덕한 여자’로 내몰리다», 『여성신문』, 2018.6.27. 참조.

23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설득력 약해», 『경향신문』, 1990.10.17; 「영화 〈단지 그대가...〉 시민토론 ‘여성 인권 침해’ 부각 소홀», 『동아일보』, 1990.10.17.

24 위의 글.

25 더불어 사건의 해결이 거짓 증언을 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시누이의 증언 반복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위의 글 참조.

26 남인영, 「출발점에 선 ‘여성영화’—〈물 위를 걷는 여자〉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과 사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1991, 312쪽.

27 「영화 〈단지 그대가...〉 시민토론 ‘여성 인권 침해’ 부각 소홀», 앞의 글.

통과 내면 갈등”²⁸이 소외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일반의 추상화된 문제”로, 거기서 다시 “추상화된 인권 문제”²⁹로 성폭행 피해 여성의 곤경이 점차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인숙의 『긴 밤』은 성폭력을 텍스트에 재현하는 문제와 관련한 바로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위에서 은재의 ‘내면’은 요청되고 기록된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감정들이 그렇다면 무엇과 이어지는지에 관한 고민을 『긴 밤』은 독자에게 전한다.

그렇다면 정만우의 반대편에서, “언제나 ‘따뜻한 웃음’과 친절함, 상냥함 등으로 나타날 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나치게 추상적”³⁰인 인물로 일컬어진 송은재에 주목하여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 어떠할까. 정만우가 “진짜배기 노동자”(II: 237)로서 심판대에 선 순간, 그가 서 있는 법정의 육중한 문을 슬며시 열기까지 은재의 심리는 어떠했을까.

고귀한 새에 짓밟힌 잡초로 제 자신을 비유하며 그녀를 강간한 정만우가 저 홀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자칫집을 떠나간 뒤³¹, 은재는 교회에서 기도가 가진 구원의 힘에 기대어보고자 한다.³² 하지만 그녀는 곧 ‘평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완벽하게 허물어져내리고 황폐해져버린 가슴”(I: 409)만이 제게 남았음

28 「영화 <단지 그대가...> 상업성 치우쳐 여성문제 왜곡」, 『한겨레』, 1990.10.18.

29 남인영, 앞의 글, 313쪽.

30 김철, 앞의 글, 401쪽.

31 정만우는 은재에게서 연애 감정을 느끼자마자 어렸을 적 “엄청난 권위와 도도한 풍요의 아름다움”(I: 29)을 지녔던 선주(船主)의 딸 창희를 연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일방적)호의를 창희가 거절하자 “얼굴을 후려갈”기고 “발길질까지”(I: 32) 한 뒤 달음박질친다. 몸이 약했던 창희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 “그것이 연애였다면, 그것도 실연은 실연이었으리라”(I: 32)라며 만우는 자신이 가한 폭행의 기억은 가두고 실연의 아픈 상처로서 이를 회상한다. 그에게는 ‘상처 입은 존재로서의 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미리 엿볼 수 있다.

32 시국사건에 연루된 수배자로서 몸을 의탁한 줄로만 알고 목사는 은재를 받아들인다. “은재가 기다리는 게 뭘진 몰라도 주께서 이루어주실거야”(I: 108)라며 자상히 평화를 빌어주곤 하던 그는 그러나 은재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교회에서 내친다.

을 시인한다. 그리곤 줄곧 사랑은 발전의 원동력이라 말하며, 감당할 수 없는 엄숙성을 떠안기곤 했던 약혼자 경섭의 고백도 매정히 거절한다. 때론 속이 뒤집히는 역겨움을 느끼자 임신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공포보다 더 큰 노여움”(I: 136)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중산층인 자신이 운동에 뛰어든 것이 욕심은 아니었는지 되뇌며 스스로를 의심한다. 착란 같은 외침만을 거듭한다. 그러나 이보다 그녀의 감정, 정확히는 분노가 훨씬 격화되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념에 빠져들 때이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수도 없이 되뇌인 질문이었다. 만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그 ‘짐승’을 만나 무엇을 정리할 게 있을까. 그러나 모른다. 이대로, 그냥 그 오욕의 상처를 끌어안고 영원히 주저앉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어느 편에 서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헐뜯으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만우, 그를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른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단 한 가지라도 확실한 게 생길지도 모른다.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영혼인가, 아니면 만우의 영혼인가. 새롭게 일어섬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 자신을 위해 한 번쯤 그를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여유를, 그래, 꾸며보고 싶을 뿐이다. 진심이 아니어도 좋다. 유치한 연극일지라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이다.

자꾸만 몸이 떨려왔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 잊으려고 해도 그 밤, 고통의 그 밤이 선연한 기억으로 은재의 온몸을 거친 매질처럼 두드려온다. 용서라구? 여유라구? 아니, 아니다.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음이라. 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당신도 무너져라. 남김없이 부서져라.(I: 176)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짐승”인 만우에 대해 은재는 생각한다. “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당신도 무너져라. 남김없이 부서져라”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홀로 그에게 퍼붓는다. 이 같은 은재의 감정은 『긴 밤』의 후반부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스읍에서의 1년. 그들의 적당한 방만함과 그들의 무한정인 것처럼 쏟아져오던 애정. 그때에서야 비로소 일체감이란 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 편안하고 즐거웠던 시절이다. 그 속에서 은재는 자신이 아주 많이 성장을 했다고 믿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체감이란 것은 깨닫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음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일체감이란, 끊임없이 달려가고 끊임없이 부동켜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원점이었다. 그리고 영똥하게 이력서의 한 칸을 메우는 것과 같은 경력만이 살아서…… 자신을 다시 한번 기만한다. 은재는 그날 만우의 말 속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

은재는 쌀을 일구는 손에 자꾸만 맥이 풀리는 것을 느낀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었다. 만우를 위해 밥을 짓는다. 은재는 끝내 쌀을 일구던 손을 멈춰버린다.(II: 90)

이후 은재는 스읍에서 그간 받아온 애정을 애써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 다시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서로를 끊임없이 부동켜안으며 “전체 노동자”³³, 그녀의 말로는 “일체감”에 녹아들고자 한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음을 느낀다. 정만우를 “훌륭한 진짜 노동자”(I: 176)로 성장시키려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 반면, 그가 언제나 제 방 안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 “적의”(II: 95)가 배어 나온다. 정만우가 찾아와 부끄러움을 타며 자신을 노동자로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넬 때에는 “격렬한 통증”(II: 145)에, 다른 이가 그가 노동자로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올 적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린 뒤에도 여전히 끈끈하고 괴로운 느낌”(II: 145)에 휩싸인다. 말했듯이 이러한 분노, 고통의 감정은 『긴 밤』 내에서 반복된다. 자칫집에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죽을뻔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출되자 은재는 죽지 못했음을 통탄한다.

그렇다면 은재의 ‘분노’, ‘고통’, ‘적의’, ‘괴로움’은 무엇과 이어지는 것인가.

33 구해근, 신광영 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148쪽.

소설의 마지막에 당도하여 은재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순결”(chastity)이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가해자에 의해 “상실된 육체”가 아닌, 끝내 “부끄러움”으로 남겨 된 “자신의 영혼”(spirit)(II: 226)이다.

송은재의 이 ‘부끄러움’은 I권 II권의 말미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한다. 이 두 가지 부끄러움은 판이하다. I권에서의 ‘부끄러움’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포착된다. 여기서 은재는 알다시피 정만우에게 ‘진짜 노동자’가 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곤 “나는 그렇게 부끄러움으로 남고…….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모두가 나를 남겨둔 채, 자기 똥으로 달려가 주세요. 나는 부끄러움으로 이대로 남을 테니까”(I: 264)라고 말한다. 이때 은재의 ‘부끄러움’은 체념 혹은 좌절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II권에 와, 이때를 돌이켜보며 은재는 그 말이 자신의 진심이 아닌 “일그러진 보상심리”이자 “왜곡된 희망”(II: 90)에 불과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살피본 바처럼 II권 말미의, 그녀가 법정으로 향하며 스스로 감지하는 ‘부끄러움’은 꼭 다른 것이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악착같이 부정하기 위해 은재는 극약처방도 서슴지 않았다. 만우 그 자식은 짐승이야. 날 결국 이렇게 만든 건 바로 그 자식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 역시 허망한 시도였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별거벗은 흉터를 밝혔을 뿐이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은재의 흑심한 부끄러움은 상실된 육체의 순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 스스로 순결을 던져버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부끄러움일 뿐이었다.

그러한 기억들의 그를 안고는 이 땅을 떠나는 건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러한 예감은 몸서리쳐지도록 두려운 것이었고. 그렇다, 바로 그래서라도 이러한 의식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떨 귀야 할 마지막의 것. 만우 그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완전히 떨어버려야만 한다.

은재는 숨을 멈추었다가 끝내 법정문을 연다.(II: 226)

이때의 ‘부끄러움’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관객들이 요청한,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내면을 가정, 국가, 법이라는 광의의 것에 줄곧 끌어들이려

하지 않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부끄러움(shame)’이란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감시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점을 찰스 다윈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부끄러움을 자기 비난의 토대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의 토대로 이해함으로써, 전통적인 행동규칙을 위반할 때 빈번히 발생하는 감정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이 관례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든다는 것이 된다. 한편 본고의 맥락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윈의 입장을 재진술한 사회학자 토머스 셰프의 이론이다. 그는 두 가지 부끄러움에 대해 논한다. 하나는 다윈의, 순응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사회 조직에서 자신을 주시하는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가시성이 낮은 ‘눈에 띄지 않는 부끄러움(low-visibility shame)’으로, 그 표현이 위장되거나 무시되어 왔기에 좀처럼 인식되지 않는 감정이다. 인식의 경계 아래에서 경험되는 이 부끄러움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순응과의 관계를 잠재적으로 의문시하게 만드는 감정으로서 적대(hostility)의 원천이 된다. 자아를 경험의 중심에 둬으로써 독자적인 정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요컨대 ‘부끄러움’이라는 이 감정은, 사회적 순응(social conformity)뿐만 아니라 비-순응과도 가장 밀접한 감정이라는 것이다.³⁴

이처럼 셰프를 경유하여, 『긴 밤』 속 송은재가 상실된 육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닌, 자신의 영혼, 즉 자신의 정신(spirit)에 대한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장면을 또렷이 목도하고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부끄러움’으로서 일종의 적대로 빛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녀에게 “언제나 ‘따뜻한 웃음’과 친절함, 상냥함 등으로 나타날 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나치게 추상적”³⁵인 인물이라는 평가만을 덧붙이는 것보다 이 소설이 지닌 의미를 예각화하여 탐구해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은재의 눈에 띄지 않는 부끄러움은 바로

34 Thomas J. Scheff,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rence-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3, No.3,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8, pp.395-406; J.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2007, 176-212쪽 참조.

35 김철, 앞의 글, 401쪽.

다음과 같은 정치사회적 맥락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4 ‘민주국가’로의 진입과 ‘동의’라는 환상

『긴 밤』이 출간된 1991년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며 ‘정조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던 때였다. 그리고 ‘정조’라는 용어가 으레 연상시키듯 죽을힘을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해야만, 행위에 폭력성이 있을 때만 이는 성폭력으로 간주되었다. 성적 행위가 일어난 정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³⁶ 이렇듯 지나치리만치 한정적이었던 ‘성폭력’의 범주는, “친교, 우정, 연애, 사랑과 같은 친밀성의 기호들에 둘러싸인 섹슈얼리티로부터 어떻게 폭력이 발생하며 그 폭력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³⁷, 즉 ‘성적인 것(the sexual)’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반성폭력운동을 이끌어온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성폭력의 정의는, 이 ‘성적인 것’의 혼돈으로부터 성폭력을 말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진전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³⁸

성폭력이 육체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억압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성적 자기결정(sexual self-determination)’은 이외에도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자리매김이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숙의 설명에 의하면, 1990년대의 반성폭력운동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국가를 상대로 이뤄지는 입법운동과 운동 이슈의 제도화” 운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관한 법제화와 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의 의미를 채우고 확장하거나 서둘러 닫으려는 담론들의 경합과 투쟁”³⁹ 운동으로 1990년대 대

36 심영희, 「탈가부장적 주류화 성정책의 모색—성폭력 및 성매매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나남, 2006, 291-299쪽.

37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제13호, 한국여성연구소, 2001, 10쪽.

38 위의 글, 10쪽.

39 신상숙,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 제2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8, 98쪽.

학과와 시민사회에서 젠더갈등의 양상으로 발현된 움직임이었다. 국가-운동정치
의 ‘제도화’와 담론정치의 ‘급진화’로도 요약되는 이 두 운동 양상은 90년대에
경합하며 내적 긴장과 역동성을 부여한다.

이 중 전자에 해당하는,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반성폭력운동을 수행한 여
성단체들은 아내 구타 문제나 직장폭력 외에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성폭력
범주에 적극적으로 포괄하고자 했다. 이는 물론 주요한 이슈 중 하나임에는 분명
했지만,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젠더의 차이로 말미암아 여성에게 일어나는 특
수한 문제 정도로 간주함으로써, 젠더의 권력관계를 비판하는 대항담론의 생산
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⁴⁰

“너한테도 내가 짐이니?”

“은재야!”

두어 번이나 빨았을까 말까한 담배를 부벼 꺼버리며 진선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은재를 불렀다.

“경우가 다르지만…… 권인숙을 생각해봐.”

“경우가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은재는 쓸쓸하게 웃었다.(I: 168)

『긴 밤』에서 학출 노동자이자 은재의 절친한 친구인 진선은 그녀가 성폭행을 당
한 이후 계속 괴로워하자 이처럼 “권인숙을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건넨다. 익히
알다시피 권인숙은 학출 여성 노동자로서 1986년 당시 경찰에 의해 자행된 성폭
력을 폭로한 인물이다. 눈에 띄는 것은 자신이 겪은 폭력의 체험을 ‘여성’에게 가
해진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해 줄 것을 역설했다는 점이
다. 국가-운동정치의 ‘제도화’에 힘을 싣고자 한 여성단체의 행로를 진선은 뒤따
른다.

그렇다면 진선의 발언에 대한 은재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녀는 “경우가 달라
도 너무 다르”다고 말하다가는 곧, “순결한 투사”(I: 168)인 권인숙의 희생에 비

40 위의 글, 96쪽 참조.

하면 자신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는 ‘부끄러움’이라는 제 감정을 II권에 와 ‘다시’ 들여보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했을 것이다.

진선에 이어 다른 작중인물과 은재의 관계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약혼자 경섭은 성폭행을 당한 은재를 찾아와 “그건 분명히 사고나 재난에 지나지 않”(I: 127)는다는 말을 건넨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다고, 모든 게 변함없이 그대로라고, 함께 널 돕겠다고 말이다.

은재의 악쓰는 소리가 히스테리처럼 울렸다.

“네 일이나 열심히 하란 말이야! 날보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라는 거니? 너하고 난 달라. 난 너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사고나 재난 같은 거라구. 난 손가락 하나만 칼에 베어도 열흘은 드러누워 있을 사람이야. 내게 그런 고백을 듣고 싶은 거니?”

은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경섭은 와락 두려움이 담기는 듯한 시선으로 은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I: 131)

은재의 대응은 위와 같다. 악을 쓰고, 얼굴이 그만 하얗게 질린 채, 사고나 재난에 제 작은 상처 하나 견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언제나 “신세벽”(I: 81)에 비유하는, 자신보다도 훨씬 귀족적인 성장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섭조차 자연스럽게 체득한 “민중적 분위기”(I: 148)를 어찌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인지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남성의 경우, 계급 등을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은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에 빠져든다. 아랑곳하지 않고 만우에게서 “기쁨”과 “발전의 씨앗”(II: 126)을 발견해내는 경섭과, 은재는 이별한다.

이후에도 진선, 경섭을 포함한 다른 이들과 자꾸만 마주치며 상술했듯 I권의 은재는 체념 혹은 좌절에 매몰되어 간다. 이어 자신처럼 세상과 싸운 자가 정당히 법정에서 서게 되리라는 만우의 말에 은재는 질식할 것 같은 심정을 느낀다. 절규에 가까운 대화 이후의 경섭의 태도, 그리고 만우의 이러한 발언에는 은재의 고뇌가 조금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자세는 강제에 대한 여성의 통상적인 그

리고 절망적인 반응을 접수하여 ‘동의(consent)’라고 부르는, 동시에 이를 은폐한 채 여성에게 ‘성의 자유’, ‘프라이버시’, ‘동의’와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자유주의 국가, 법 담론⁴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적으로 자리한다.⁴²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을 정의하려 한 90년대 초 여성계의 상황을 마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정조의 죄’라는 전통적인 문제들과 단절하고 성폭력 적용 범위의 확장을 피하려 하나 위기에 봉착한다. 1993년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특별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닌 ‘성폭력 범죄’란 표현을 택한다. 즉 성폭력을 기존 형법상에 규정된 성범죄 행위들의 단순한 형용어로 치환함으로써, 성폭력이 실제로 무엇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서 판단되고 통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봉쇄한다.⁴³ 이로써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문제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율적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권리적인 표현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들의 수많은 외침, 함성에도 불구하고 허공에 떠 있게 된다.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당대 정치사회적 흐름 속 『긴 밤』이라는 텍스트가 지닌 의미이다.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의 외침이 스러진 상황과 은재의 형편은 겹쳐 있다. 다시 말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향한 여성들의 함성이 인간, 민족, 국가와 같은 광의의 개념에 거두어져 소거된 것은, 진선, 경섭, 법정 안 군중에 둘러싸여 은재의 목소리가 점차 소멸된 것과 유비 관계를 이룬다. 은재의 ‘눈에 띄지 않는 부끄러움(low-visibility shame)’이 『긴 밤』에서 포착된다는

41 Catharine A. Ma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168.

42 여기에 경섭의 일화를 덧붙이고자 한다. 그는 민족·민중주의에 기반한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에 사로잡혀 은재에게 고통은 다 잊을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아주 잠시, 도대체 민중이란 게 무엇인지를 자문하며 은재를 알아간 것이 바로 자신과 은재가 선하게 믿었던 ‘또 하나의 몸, 바로 민중’(I: 120)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제 이런 상념이 “비약”, “쓸데없는 감상”, 혹은 “패배주의”(I: 120)인지를 고민하던 경섭은 그러나 금세 다시 예전의 그, ‘민중’에게서 기쁨을 발견하고 감복해하는 모습으로 귀환한다. 섬뜩함을 선사하는 이에피소드는 『긴 밤』이라는 텍스트의 실패를 노정하기보다, 은재의 ‘부끄러움’과 더불어 운동권 주체의 내적 풍경의 한 진실을 보여준다.

43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앞의 글, 20쪽 참조.

사실은 이때 중요하다.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만우에게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만우가 ‘민주시민’이라는 사실을 은재가 마침내 긍정하는 것인지가 미심쩍은 가운데, 그녀의 ‘눈에 띄지 않는 부끄러움’만은, 이곳에 적대(hostility)가 남아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일러주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한국 법정에서 들리지 않게 된 노동자의 함성과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함성 중, 전자는 가득히 울려 퍼지는 것으로, 후자는 은재라는 인물의 내적 외침만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재현함으로써 『긴 밤』은 법정이 표상하는 민주국가에는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도 아닌, 오직 ‘민중’을 현현하는 이들을 위한 환대의 자리만이 마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시민의 위계⁴⁴를 노출한다. 법정 내 민중의 함성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발붙일 땅을 잃을 것이라는 화자의 말(II: 242)은 일종의 예언이 되어 『긴 밤』을 휘돈다.

“진짜 노동자”라는 ‘주체’의 문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옮겨오는, “상실된 육체”의 부끄러움이 아닌, 자신의 삶의 ‘구체’를 민족, 국가의 ‘추상’에 복속시키려한 “자신의 영혼”에 대한 부끄러움을 대면하는, 이 소설 『긴 밤』의 주인공 은재는 종내에 “이 땅”(nation)을 떠나려 한다. 그리고 나서야 의식을 치르듯 법정으로 향한다. 그것이 비록 의식(ritual)에 불과할지라도, 은재는 제 몸을 이끌어, 법 앞에(before the law) 세운다.

보편적인 시민권을 성문화하는 법에 다가갈수록, 젠더 중립적인 개인이라는 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이 그 자리를 쉽게 채울 수 있다고 했을 때, 근대 헌법에서 상정하는 인격주의적 인간에서 비껴난 구체적인 개인의 자리, 그리고 그 내면은 이렇게 “다른 자리에” 있고자 하는, “세상과 맺었던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불구”⁴⁵를 자처하는 문학에 의해 마련되고 있었다.

5 나가며: ‘여성문학’과 ‘대중성’에 관한 의문

44 관련하여 시민의 위계, 정확히는 “여성의 종속(subordination of women)”에 대해 논하는 글로는 캐서린 맥किन의 다음 저서를 참고할 것. Catharine A. MacKinnon, *Only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45 김인숙·류보선, 「(대담)파국의 세상과 인간이라는 구원의 힘」, 『문학동네』 제82호, 2015 봄, 93쪽.

자유주의 사회의 인식 지평 아래에서 경험되는, 사회적 순응을 의심하는 상상과 공상 그리고 감정들이 문학이라는 공간 안에 비로소 담긴다는 면⁴⁶을 고려했을 때 이 소설은 김인숙의 소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긴 밤』은 김인숙의 그 수많은 소설의 목록을 짚어나갈 적이면 대개 존재하지도 않았던 작품처럼 치부된다.⁴⁷ 그것은 왜일까.

‘노동자의 사랑’을 다뤘다고 여겨지는 이 소설⁴⁸은 ‘노동자’의 사랑을 다뤘기

46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537쪽.

47 비교적 최근에 제출된 논문들까지도 김인숙의 작가론을 써 내려갈 때면 『함께 걷는 길』(1988)까지를 하나로 놓고, 『칼날과 사랑』(1993), 『유리구두』(1998) 이후를 다른 하나로 놓고는 소설을 분절하여 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김인숙의 소설이 ‘노동자의 삶’을 조명하는 데에서 이행해 ‘보통 사람을 삶’을, 깊이 들어가서는 90년대의 성적 육체와 욕망을 가시화한다고 말하는 것을 더욱 명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김인숙을 향한 이러한 분절의 시선에선 그 사이 몇 작품이 지닌, 이를테면 본고에서 논하고 있듯 노동자의 성장 서사와 ‘연애 서사’를 연결하며 “진짜 노동자”라는 ‘주체’의 문제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겹쳐 다루고자 한 서사적 기획의 의미나 이후 해석의 모순 등이 포착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임규찬,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일상의 길트기」, 『칼날과 사랑』, 창작과비평사, 1993; 이해령, 「포스트 80년대, 비범한 날들의 기억—신경숙과 김인숙 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39호, 반교어문학회, 2015; 오자은, 「전환기의 내면, 진정성의 분화—김인숙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참조.

48 한편 작가 김인숙 또한 당시 『긴 밤』을 ‘사랑의 이야기’로 표현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그러나 2015년의 김인숙은 평론가 류보선이 『긴 밤』을 포함한 그녀의 1980-90년대 작품의 의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자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라고 말하며 당혹스러워한다. 그건 평론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한다. 김인숙·류보선, 앞의 글, 89쪽 참조. 『긴 밤』 이후 김인숙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다. “옛날엔 내가 운동의 본질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본질을 몰라서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경직되게 나 자신을 꿰뚫어주고, 내가 나의 자유로운 부분들, 바람직한 부분들 까지도 가치를 쳐가면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김남일, 「다시, 서울에서 김인숙을 만나다」, 『월간 말』 제107호, 1995.5, 194쪽. 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아니 『긴 밤』 집필로부터 불과 4년 뒤의 김인숙조차 소설을 여전히 노동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정의하고 있을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그녀가 실제 『긴 밤』 집필 이후 호주로 떠나 한국(문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던, “내 문학의 영토를 떠나서 살아본 경험”(김인숙, 「1994년, 어느 날」, 『문학동네』 제100호 특별부록, 2019 가을, 48쪽.)

에 한편으로 “민족문학이 내세운 전략”인 “90년대를 감싸안기 위해 80년대의 정신을 여전히 동시대인의 좌표로 설정하는 방식”⁴⁹에 속하는 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당대 사랑, 섹슈얼리티 등 ‘사적 영역’을 비판적으로 가시화하며 가부장적 가족 제도와 규범적 여성성에 대해 비판한 1990년대 여성문학의 자장⁵⁰ 안에 녹아들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사랑’을 다뤘기에 “독자의 통속적인 호기심에 노출될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⁵¹는 창작물로 불리며 민족문학 진영에도 쉽게 끼어들지 못한다. 즉 여성문학 진영과 민족문학 진영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나 『긴 밤』을 둘러싼 비평 공간을 살펴보면,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 소설로서 돋보인 것으로 보인다.

변혁운동의 중심에 선 주인공이 강간이라고 하는 매우 우발적인 형태의 억압에 직면하고 그 고통에 몸부림친다는 것은, 오늘날 변혁운동을 형상화하는 소설들의 상궤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 그런만큼 독자의 통속적인 호기심에 노출될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

이 소설의 중심선은 불운에 처한 순결한 여주인공 은재의 운명을 추적하는 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그랬더라면 소설은 지극히 범속한 수준, 즉 폭력에 의해 순결을 잃은 여주인공과 그의 애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감정묘사와 얽히고 설킨 애정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 그러나 이 소설의 중심은 경섭과 은재 사이의 애정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만우라는 인물에게 놓임으로써 통속소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행된다.⁵²

역시 작용했을 것이다.

-
- 49 류보선, 「전환기적 현실과 민족문학의 운명」, 『문학동네』 제1호, 1994 겨울, 70쪽.
 50 김은하, 「1990년대 여성 서사의 귀환과 ‘낭만적 사랑’의 종언」,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2권 1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206쪽.
 51 김철, 앞의 글, 397쪽.
 52 위의 글, 397-998쪽.

‘전혀 다른 차원’, 그것은 위 평론에서 “진정한 대중문학”⁵³의 차원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민족문학의 ‘대중적 결합’을 이뤄내는 소설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긴 밤』은 빛을 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대중성’이란 끝내 모호한 것으로 남는다. 강간이라고 하는 “매우 우발적인 형태의 억압”에 직면하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대중적’인 것이란 말인가?

1990년대 한국 문단에서 ‘통속성’, ‘상업성’, ‘상품성’ 등과 혼재되어 빈번하게 호출되는 ‘대중성’이라는 단어의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나선 한 좌담에서는 “당대의 상징질서 내지 이데올로기로부터 ‘낮은 이탈 수준’이 대중문학의 대중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⁵⁴이라고 주장한다. 당대의 상징질서로부터 ‘이탈의 정도’가 높다면 ‘예술성’이 높은 문학, 낮으면 ‘대중성’이 높은 문학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긴 밤』이 과연 ‘대중성’을 담보하는, 당대 의식의 체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소설이라 할 수 있는가. 『긴 밤』은 다가온 90년대에 걸맞은 “진정한 대중문학”이자 “진정한 리얼리즘문학”⁵⁵을 탄생시키려던 빛바랜 기도와 같은 소설에 불과한가. 이렇듯 ‘대중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가운데⁵⁶, 『긴 밤』은 오직 깊은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족문학의 ‘대중성’을 보증했던 작품으로 가볍게 소비되고, 더 가볍게 소거된다.⁵⁷ 은재의 눈에 띄지 않는 부끄러움(low-visibility shame) 또

53 위의 글, 400쪽.

54 도정일 외, 「(지상토론)90년대 문학계의 신쟁점을 논한다」, 『실천문학』 제38호, 1995 여름, 139쪽.

55 김철, 앞의 글, 401쪽.

56 당대 평단에 ‘잘 팔리는’ 것에 대한 강조 말고는 ‘대중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해주는 대목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대중성’과 ‘통속성’ 등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쓰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 고미숙, 「‘새로운 중세’인가 ‘포스트 모던’인가—《상상》의 ‘동아시아 문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학동네』 제4호, 1995 가을.

57 관련하여 1990년대 ‘민족문학’과 ‘대중성’, 그리고 ‘여성문학’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문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대중성 확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여성문학이 획득한 ‘대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대중문화나 페미니즘의 상품화에 대항하는 입론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여성문학의 ‘대중성’은 그것대로 살리면서, 상품시장의 논의에 포섭되지 않도록 ‘가짜 대중성’과의 구별

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연구는 『긴 밤』을 에워싼 이와 같은 기존의 맥락에서 기꺼이 이탈한다. 법문화(legal culture)에서 여성이 겪는 상해(injuries)는 자주 인식되지 않거나 그 피해가 배상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즉 본고는 『긴 밤』을 법적 조치의 범위 바깥에 놓인 여성의 고통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⁸는 여성주의 법학⁵⁹의 관점에 기대어 다시 읽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소설 『긴 밤』은 법정이라는 장치 위에 텍스트 바깥에서 금지된 두 합성—정확히는 합성이 되고자 한 목소리—을 재현하고 있다. 하나는 정만우가 대표하는 노동자의 합성이며 다른 하나는 송은재가 지시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여성의 합성이다. 후반부 법정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노동자의 외침은 거대한 합성이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미심쩍은 “평화” 속에서 고독하게 잦아들고 마는 것으로 구성된다.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소란’ 정도로 축소되어 잘 들리지 않았던 두 합성은 『긴 밤』에서 이렇게 재현(representation)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은재를 대신하듯 자리에 붙박여있는 와중, 정만우만이 “정당한 민주시민”으로서 호명된다.⁶⁰

을 명확히 하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강조는 인용자)라는 발언이 이때 주목된다. 김양선, 「근대 극복을 위한 여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 제24권 4호, 1996 겨울, 142-143쪽. 그리고 여기서의 “가짜 대중성”은 과연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1990년대의 한국문학의 ‘대중성’ 담론과 더불어 “가짜 대중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어 다루고자 한다.

58 Robin West, “The Difference in Women’s Hedonic Lives: A Phenomenological Critique of Feminist Legal Theory,” *Wisconsin Women’s Law Journal*, Vol.3,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1987, pp.115-118.

59 ‘여성주의 법학(fem-crits)’은 객관성·불편부당성·보편성을 지향하는 법문의 해석과 대치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atharine A. Mackinnon,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8, No.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Clare Dalton, “Where We Stand: Observations on the Situations of Feminist Legal Though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3, University of Berkeley Law School, 1988.

60 사회는 혜택과 부담으로 이루어진 체제로 유지되기에, 형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이성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여기는, 외면 또는 회색주의가 발붙일 수 없는 땅”(II: 201)이라는 은재의 발언과 함께 이 소설은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동의에 기초한다고 했을 때, 민주주의 체제에 돌입했다고 여겨지는 1990년대 초 한국에서 그렇다면 누가 ‘민주시민’으로서 호출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일찍이 새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love story)라는 폭력적 규정이 내려졌던 이와 같은 문학 작품들은 다시 읽힐 필요가 있다. 분노, 고통, 적의, 괴로움, 그리고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 “신새벽”에 비유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에 선뜻 편입되기를 머뭇거린 이들의 마음을 찾아내 지금, 여기와 세삼 접촉하는 일은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평화’가 기이한 긴장 상태 위에서 축적된 것임을 계속해서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인숙,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 동광출판사, 1991.

_____, 「면 길」, 『실천문학』 제37호, 1995 봄.

_____, 『면 길』, 문학동네, 1995.

_____, 『시드니 그 푸른 바다에 서다』, 푸른숲, 1995.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여성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단행본

구해근, 신광영 역,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148쪽.

적 행위자”로, 즉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는 모리스의 주장을 떠올려보면 정만우가 “정당한 민주시민”(II: 231)인지는 끝내 의심스럽게 된다. Herbert Morris, “Persons and Punishment,” *The Monist*, Vol.52, No.4,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마사 누스바움, 강동혁 역,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뿌리와이파리, 2018, 377쪽. 또한 이러한 ‘민주화 세대’와 ‘성’의 문제는 과거형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권명아, 「성폭력 부정주의의 정동적 힘과 대안적 정동 생성의 ‘쓰기’」, 『여성문학연구』 제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참조.

김정한, 『비혁명의 시대—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2020, 1-368쪽.

심영희 외,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나남, 2006, 291-299쪽.

마사 누스바움, 강동혁 역, 『분노와 용서—적개심, 아량, 정의』, 뿌리와이파리, 2018, 377쪽.

_____,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537쪽.

캐롤 페이트먼, 이평화·이성민 역, 『여자들의 무질서』, 도서출판 b, 2018, 120쪽.

J.M. 바바렛, 박형신·정수남 역, 『감정의 거시사회학—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일신사, 2007, 176-212쪽.

MacKinnon, Catharine A., *Only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p.1-152.

_____,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168.

논문

고미숙, 「'새로운 중세'인가 '포스트 모던'인가—《상상》의 '동아시아 문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학동네』 제4호, 1995 가을, 417-437쪽.

권명아, 「성폭력 부정주의의 정동적 힘과 대안적 정동 생성의 '쓰기」, 『여성문학연구』 제5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230-262쪽.

김남일, 「다시, 서울에서 김인숙을 만나다」, 『월간 말』 제107호, 1995.5, 192-197쪽.

김양선, 「근대 극복을 위한 여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 제24권 4호, 1996 겨울, 136-154쪽.

김은하, 「1990년대 여성 서사의 귀환과 '낭만적 사랑'의 종언」,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2권 1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203-231쪽.

김인숙, 「1994년, 어느 날」, 『문학동네』 제100호 특별부록, 2019 가을, 47-

50쪽.

김인숙·류보선, 「(대답)파국의 세상과 인간이라는 구원의 힘」, 『문학동네』 제 82호, 2015 봄, 78-112쪽.

김철, 「진정한 대중문학을 위하여—김인숙의 《긴 밤, 짧게 다가온 아침》」, 『실천문학』 제22호, 1991 가을, 394-401쪽.

남인영, 「출발점에 선 ‘여성영화’—〈물 위를 걷는 여자〉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과 사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1991, 305-313쪽.

도정일 외, 「(지상토론)90년대 문학계의 신쟁점을 논한다」, 『실천문학』 제38호, 1995 여름, 133-188쪽.

류보선, 「전환기적 현실과 민족문학의 운명」, 『문학동네』 제1호, 1994 겨울, 64-80쪽.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제 13호, 한국여성연구소, 2001, 6-43쪽.

——,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 제24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8, 83-119쪽.

오자은, 「전환기의 내면, 진정성의 분화—김인숙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285-318쪽.

오태호, 「상실의 사랑에서 기억의 회복으로—김인숙론」, 『작가세계』 제24권 2호, 2012 여름, 59-79쪽.

이혜령, 「포스트 80년대, 비범한 날들의 기억—신경숙과 김인숙 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39호, 반교어문학회, 2015, 515-544쪽.

임규찬,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일상의 길트기」, 『칼날과 사랑』, 창작과비평사, 1993, 320-334쪽.

MacKinnon, Catharine A.,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8, No.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p.635-658.

Dalton, Clare, “Where We Stand: Observations on the Situations of Femi-

nist Legal Though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3, University of Berkeley Law School, 1988, pp.1-13.

Morris, Herbert, “Persons and Punishment,” *The Monist*, Vol.52, No.4,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pp.475-501.

West, Robin, “The Difference in Women’s Hedonic Lives: A Phenomenological Critique of Feminist Legal Theory,” *Wisconsin Women’s Law Journal*, Vol.3,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1987, pp.81-145.

Scheff, Thomas J.,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rence-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3, No.3,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8, pp.395-406.

Abstract

The Denied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a Strange Peace
: An Analysis of Kim In-suk’s *The Long Night and Quickly Approaching Morning*

Lee Hannah

In this article, I re-read Kim In-suk’s novel *The Long Night and Quickly Approaching Mo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legal criticism, which emphasizes descriptions of the pain of women who are located outside the scope of legal action. and It is also based on the point that injuries suffered by women are frequently not recognized and the corresponding damage is not compensated in legal culture. This novel was positioned as “a bestseller in college towns” in 1991, and during this period, many novels described the innumerable tragedies of characters who joined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1980s. The book tells the story of an encounter between Song Eun-jae, who is student-turned laborer, and Jung Man-woo, who promises to love her in a one-sided manner. This novel used to be seen as “a novel that relieves the pain of a laborer through love”; however,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re-read this novel by paying attention to the heart of the heroine Song Eun-jae.

“Sexual self-determination” suggests that sexual violence is not just a physical matter but also something that leads to the suppression of free will and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t was very difficult to realize sexual self-determination, even inside the contemporary feminist movement. At this moment, the sense of crisis focused primarily

and “humans” and “people” and not on the “gender” of women who were sexual assault victims. Eun-jae feels shame that she wants to make Jung Man-woo into a great, genuine laborer; at the same time, she feels “hostility” toward him because he raped her. More precisely, her low-visibility shame exposes the subordination of women to the audience, and it remains as form of “strong hostility” that questions social conformity. In summary, this novel, which names only Jung Man-woo as an “upright democratic citizen,” amplifies two “shouts” that were prohibited outside of the text: the shout of laborers and the shout of women who were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se shouts ring out over the court of law. In this way, this novel asks tha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emocracy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consent of citizens, who is considered to be a “citizen” within the democratic system that was instituted in the early 1990s?

Key Words: Kim In-suk, *The Long Night and Quickly Approaching Morning*, 1990s, legal culture, female critics, sexual self-determination, low-visibility shame, hostility, court, shout, representation, democratic citizen, consent

본 논문은 2022년 3월 23일에 접수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